

전주시, 찾아가는 청년정책 홍보·소통

전북대 대운동장서 홍보 팝업 부스 운영... 청년이음전주 프로그램·청년교통비지원사업 등 소개

전주시가 대학들의 개강 시기를 맞아 대학생들을 찾아가 청년정책을 홍보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청년단체와 협업체 전주시 청년정책을 직접 알리고 소통하기 위한 '찾아가는 청년정책 홍보 팝업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부스 운영은 전북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등 청년단체들과 협력해 추진된 것으로, 시는 대학 내 동아리 모집 기간을 활용해 이 학교 재학생들에게 전주시 청년정책을 집중 홍보했다.

주요 청년정책은 △청년이음전주 프로그램(청년 스펙업, 토닥토닥 마음상담소, 소셜다이닝문화체험, chat gpt 활용 교육) △2025년 문화예술패스, 청년교통비지원사업 등이다.



전주시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청년단체와 협업체 전주시 청년정책을 직접 알리고 소통하기 위한 '찾아가는 청년정책 홍보 팝업 부스'를 운영했다.

특히 시는 팝업 부스가 운영된 3일간 전주 청년 온라인 플랫폼인 '청정지대' (youth.jeonju.go.kr)와 청년센터 '청년이음전주'를 소개하고, 맞춤형

정책 안내를 통해 청년들의 관심을 높였다.

팝업 부스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은주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청년 밀집 현장에서 직접 정책을 알리고 청년들과 함께 협력해 소통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내 대학교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를 통해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청년의 날'을 맞아 지역 청년단체와 협력해 오는 20일 청년 맞춤형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청년정책 관련 정보는 온라인 플랫폼 '청정지대' 또는 '청년이음전주'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전주시, 8~12일 200명 모집... 10만원 충전 교통카드 지급

전주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8일부터 12일까지 구직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 200명을 모집한다.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우범기 전주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시는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전주시인 18~39세(1985년~2006년생) 취업준비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200명을 초과할 경우 △미취업기간(오래된 순) △나이(연장자 순) △전주시 거주기간(오래된 순) 순으로 서류 심사 후 지원대상이 결정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지원금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가 지급돼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비 항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전주시 누리

집의 통합신청지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주청년 온라인플랫폼인 '청정지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오는 22일 대상자를 선정해 교통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김은주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취업준비 청년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면접과 취업 준비로 인한 교통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전주시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지적장애인 취약가구 모니터링 강화

전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적장애인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지적·자폐 장애인 1인 가구 54가구 △지적·자폐·언어 장애인 포함된 2인 이상 가구 28가구 등으로, 시 장애인복지과 직원 16명이 2인 1조로 총 8개 팀을 편성해 불시에 현장을 찾아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의 적정성 △활동지원사의 근무 실태 △이용자의 생활 안전 및

위기 징후 확인 등이다.

특히 시는 제공기관에 대상자 명단을 전달해 사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불시 현장 모니터링을 병행함으로써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취합해 보고하는 한편, 위기 가구가 발견될 경우 긴급지원과 사례관리팀 등 유관 부서와 즉시 연계할 예정이다.

나아가 주요 결과를 제공기관과 공유해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우수독서동아리 발굴·지원

책의 도시 전주시가 시민 독서공동체인 독서동아리들의 성장을 돕기로 했다.

전주시는 지역 독서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 14일까지 '2025 전주시 우수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동아리를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전주시에 등록된 독서동아리 중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 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 동아리는 그동안의 독서 활동과 운영 성과를 사례로 발표하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우수독서동아리를 발

굴·지원하고, 다양한 활동 경험을 시민과 나누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등록된 독서동아리 중 자발적으로 구성돼 5인 이상이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모임으로, 서류심사에 합격한 뒤 오는 11월 29일 사례 발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최종 선정된 동아리에게는 △대상(1팀, 50만 원) △우수상(2팀, 각 30만 원) △장려상(팀, 각 10만 원) 등 도서관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지며, 응원상과 발표상을 통해 추가 시상품도 제공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3일 전주푸드직매장 효천점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형 공유주방인 '함께주방' 2호점의 개소식을 가졌다.

전주지역 두 번째 '함께주방' 개소

시민 누구나 음식 만들고 나누며 소통하는 열린 주방 운영

전주시민 누구나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고, 맛볼 수 있는 전주 지역 두 번째 '함께주방'이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3일 전주푸드직매장 효천점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형 공유주방인 '함께주방' 2호점의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지역 자생단체 대표와 주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함께주방의 출발을 축하했다.

또한 인근 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을 초대해 함께 밑반찬을 만들고, 떡과 식혜를 나누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와 관련 '함께주방'은 시민 누

구나 요리하고 음식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유주방으로, 지난 6월 노송동 회향문화센터에 문을 연 1호점에 이어 전주푸드 효천점에 두 번째 공간이 탄생하게 됐다.

특히 '함께주방' 전주푸드 효천점은 직매장 2층에 마련된 기존 교육용 주방을 활용해 시민이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눔을 실천하는 열린 주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함께주방은 음식 나눔의 기쁨 속에서 지역공동체가 회복되는 따뜻한 공간"이라며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머무는 수 있는 생활 속 플랫폼으로 상생의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 완주·전주 통합 건의문 전달

완주전주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성도경, 박종관, 이재갑, 윤정원, 이하 위원회)는 3일 지방자치단체발전원 개원 6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완주를 방문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완주전주 통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통합반대단체가 통합반대 집회를 예고한 것에 대해 찬성입장을 표현하기 위한 집회를 계획했으나, 개원 60주년 행사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도록, 윤 장관의 방문을 환영하는 인사와 함께 건의문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이 현 정부의 정책과 궤도를 같이하고 있음을 밝히고, 현재 통합논의가 완주군민 서명부를 통해 시작되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완주군 정치권과 반대단체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왜곡된 정보제공을 통해 반대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속한 주민투표 시행 △완주·전주 통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 △통합시의 특별시 승격 및 4개 행정구 설치 등 완주·전주 상생발전 105개방안 지원 △완주군수 중립의무 위반 및 반대단체 지원행태 시정 요구 등을 건의했다.

완주전주 통합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건의서 전달은 지역사회가 한 마음으로 통합을 바라는 뜻을 정부에 전달한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통합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제10회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2025년 9월 4일(목) 오후 6시30분~

전주한옥마을 특설무대(경기전 앞)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본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출연진

사회-서정우

이태현

김민영

혜미

백명주

백명주